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제33권 19호(다해) 2013.4.7

[묵상]



성 토마스의 의심<카락바조, 17c>

토마스에게 보여주셨던
두 손과 옆구리를 저희에게도.....

그러나
'토마스와 같이'가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소서.

당신께서
토마스에게 나타나신 건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가 할 일은
이성을 움직여
이리저리 따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
당신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소서.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프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서해수 마리아
특전미사	(생)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권순애 테레사
주 일	(연)이용식 베드로, 권복남 모니카, 정학순 발바라, 김중덕, 김금점 모니카, 이경용 야고보, 이현호 요한, 주리희 요셉,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김완태 다미아노, 이계구,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이상현 베드로, 정완현 안드레아, 윤춘의 스킵라스티카, 송기인 요셉 & 김재순 아가다, 최윤정
낮 미사	(생)이윤조 클라라, 이근모 마리아 & 이행자 리드비나, 이재호 펠릭스 & 신동윤 빈첸시오 & 박인호 요한, 김스타판 프란치스코, 이광웅 요셉, 정은경 그레이스, 전정일 요한 & 전호재 베로니카, 박찬섭 & 박수정 가정, 최현찬 안드레아 가정, 서성용 베드로 & 서용숙 에스텔 가정, 박인수 프란치스코, 정규숙 안나 & 이순자 비비안나, 유정복 베네딕도, 오마우라 수녀,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5,12-16

화답송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제 2독서 요한 묵시록(Revelation) 1,9-11 나. 12-13. 17-19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사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 음 요한(John) 20,19-31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기뻐하며 왕께	166	166
봉헌	166	264	268
성체	You Raise Me Up	304	304
파견	240	167	194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교회의 사명: 하느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세상에 희망의 “로고스”를 선포함

아버지께서 당신 뜻을 이루도록 보내신 그분은(요한 5,36-38; 6,38-40; 7,16-18)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며 우리가 당신 삶과 사명에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부활하신 분의 성령은 이렇게 하여 우리가 온 세상에서 힘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설교와 증거를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보았던 첫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체험이었습니다.(사도 6,7 참조). 여기에서 특별히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인 바오로 사도의 삶과-“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그의 사명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1코린 9,16).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이 참으로 모든 민족의 구원이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포하는 것은 희망의 로고스(1베드 3,15 참조)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를 살 수 있기 위하여 인간은 “위대한 희망”을 필요로 하고, 그 위대한 희망은 “사람의 모습을 지니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요한 13,1)” 하느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간직해 둘 수 없습니다. 그 말씀들은 모두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은, 그것을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이 선포를 필요로 합니다. 아모스의 시대에 그러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들 사이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배고픔과 새로운 목마름을 일으키십니다.(아모 8,11 참조). 우리 자신이 은총으로 받았던 것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느님 말씀, 교회 사명의 원천

92).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하느님의 백성 안에 처음부터 존재해 온 선교 의식을 되살려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선교적인 선포를 신앙의 본질 자체에서 나오는 필연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느님은 모든이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아드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된 하느님으로서 이로써 모든 인간이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기다리고 있는 응답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계속>

보지 않고도 믿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초대 신자 공동체에서 사도들은 ‘많은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주님을 전합니다.(제1독서) 이는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났기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새로운 삶으로, ‘부활’로 이어진 것입니다. 토마스 사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하고 인사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서 동료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마다했던 것 같습니다.

적대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라자로를 살리려고 유다 땅으로 가시려 할 때, 스승을 기꺼이 따라나섰던 제자가 바로 토마스였습니다. 그는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려 갑시다.”(요한 11,16)라고 말하면서 머뭇거리던 다른 제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는 스승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충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스승의 비참한 죽음에 더 크게 상심하여 두문불출했던 것 같습니다.

토마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남다른 충정 때문에 크게 상심

한 제자를 남다른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여드레 뒤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토마스가 원하던 대로 해 주십니다.

그러자 토마스는 예수님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토마스에게 믿음의 결림돌을 치워주십니다. 동시에 그의 믿음이 한층 더 굳건하게 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고 의심을 극복한 토마스는 주님을 증거하는 데에 일생을 바칩니다.

우리 역시 토마스처럼 하느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혹은 너무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느님이 정말 계신가?’하고 의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증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명한 징표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징표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신다면 과연 선하고 전능하신 분인지 의심이 들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 ‘죽었었지만,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제2독서)께 간절히 청하면 좋겠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태양이 비치지 않을 적에도 태양을 믿게 하소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적에도 사랑을 믿게 하소서. 하느님이 보이지 않을 적에도 하느님을 믿게 하소서.”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Happy Easter! Alleluiah.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박희자 마리아	남성철 베네딕토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7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대히년인 지난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의 시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 ◆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행사
 - 일시 : 오늘 주일(7일) 오후 2시 * 장소 : 성전
 - 대상 : 아치에스 행사는 레지오단원들이 모후이신 성모님께 대한 충성을 새로이 다짐하는 장엄한 예절입니다. 각단원은 물론 협조단원들도 꼭 참석해주시요.
 - 문의 : 남성철 베네딕도 꾸리아 단장 ☎(310)408-1443
- ◆ 미주지역 교포사목 부산교구 사제단 연수
 - 일정 : 4월8일(월)~ 12일(금)
 - 이 주간에 평일미사(수,목,금) 없습니다.
 - 장소 : 애리조나 피닉스 김골롬바 성당
 - 본당 신부님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 백삼위 골프 4월 토너먼트
 - 일정 : 4월13일(토) 오전 9시
 - 장소 :레이크우드 골프클럽
 - 문의 : 유석영 레오 골프회장 ☎(310)997-5388
- ◆ 본당 양업회 vs 대전회 친선 탁구대회
 - 일시 : 4월28일(주일)
 - 경기방법 등 자세한 일정은 다음주에 발표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성당 현관 중앙 프란치스코 교황님 초상화 교체했습니다. 베네딕도 16세 교황에 이어 지난 3월19일 제266대 사도좌에 착좌하신 프란치스코 새 교황의 초상화가 본당 현관 중앙벽에 새로 교체되었습니다. 본당교우 김선제 바오로 화백께서 그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남가주 M.E. 제12회 골프잔치
 - 일시 : 5월4일(토) 오후 1시
 - 장소 : 웨스트리지 골프클럽, 라하브라
 - 경기방법 : 샷건 플레이
 - 대상 : ME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 참가비 : \$100(점심과 저녁식사, 푸짐한 상품)
 - 신청 : 본당 ME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정병옥 율리아 ☎(310)780-9055
- ◆ 본당 웹사이트 www.103skcc.org 광고 접수중

본당 홈페이지 교우업소록에 게재할 홈페이지 후원업체의 광고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와함께 홈페이지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홍보분과 103skcc@gmail.com
- ◆ 2013 FIAT장학금 프로그램 신청
 - 신청마감 : 5월31일
 - 대상 : 북미주거주 한인가톨릭학생(12학년,대학생,대학원생)
 - 본당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문의 : fiat@fiat.org ☎(714)702-9830
- ◆ 판매중입니다!
 - 한글-영어 합본 상장애식서 : \$15
 - 상본 콜링카드(전화카드) : \$20 * 사무실
 - 성물부에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 친교자리 봉사 담당
 - 4월7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떡 \$4)
 - * 주일학교(3학년 첼판복음 파스타)
 - 4월14일(주일) : 토런스 서 3반(비빔밥 \$3)
 - * 주일학교(2학년 치킨 케사디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인모	구자운	김광자	김우용	김일선
	민경근	박동수	박중열	엄정자	유영균	이경태
	이병우	이인석	이형삼	장영진	정동호	정훈모
	조준제	최재은	최태훈	송마이클		
	합계 : \$2,815					
주일미사헌금: \$5,188(부활성야, 학생미사, 대미사)						
사순애공봉헌 : \$8,084 예루살렘 성지보존헌금 : \$1,789						

성전헌금	강인모	구자운	김광자	김우용	민경근	엄정자
	유영균	이경태	이병우	이인석	이형삼	정동호
	정훈모	조준제	최재은	최태훈	송마이클	
	합계 : \$1,925					
감사헌금 : 이인석						
빈첸시오회 도네이션 : 라인댄스회원들						

공지사항

◆ 첫 영성체 교리교육 실시

- 시간 : 5월19일까지 매주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장소 : 신부님 집무실(성전입구)
- 교사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 고등부(10학년) 전진성사

- 날짜 : 5월18일(토) 오전 10시
- 리허설 : 5월10일(금) 오후 7시30분
- 참회예절 : 5월17일 오후 7시
- 장소 : 성 마가렛 매리 본당
- 문의 : 빈센트 신 전진교리 교사 ☎(310)744-5878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참가비 : \$190(Deposit \$40 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 LA 한국교육원 주최 한국학교 교사 연수

- 일시 : 4월 한달동안(25일까지) 매주 화, 목 오후 7시~9시
- 참가대상 : 한국학교 교사, 한국어 교사직 또는 한글교육에 관심있는 분
- 교육내용 :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 참가비 : 없음(교재비만 \$30)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 문의 : 한국학교장 김화경 스텔라 ☎(310)464-7490

남가주 소식

◆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 유해 공경예식

- 일시 : 4월19일(금) 오후 7시30분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주임신부 김해원 가브리엘)
- 문의 : 프란치스코성당 사무실 ☎(310)324-8159

◆ 성모님을 통한 예수님께 드리는 봉헌 및 봉헌 갱신미사

- 일시 : 4월8일(월) 오후 7시
- 대상 : 전신자 * 준비물 : 묵주, 성가책
- 미사집전 : 박대덕 스테파노 신부(지도신부)
- 장소 : LA 성바실 한인천주교회 본당
- 주관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미주평의회
- 문의 : 주배석 비오 ☎(818)571-8438

◆ 사우스베이 교회대향 축구대회

- 일시 : 4월27일(토) 오전 8시, 콜럼비아 리저널파크
- 참가비 : \$300
- 신청 : 4월13일(토) * 문의:김호성 총무 ☎(310)323-2725

구인

Boba Loca 에서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 위치 : 22501 Crenshaw Bl. Torrance ☎(310)257-9033

소공동체 4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해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4/20(토) 오전 7시 엠마오대체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213-718-9262 4/13(토) 오후 7시
	3	박진경 클라라 871-7460	박진경 클라라 871-7460 4/19(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박인식 토마스 989-0366 4/14(주일) 오후 5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이철우 야고보 533-8478 4/12(금) 오후 6시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이기숙 엘리사벳 650-1515 4/19(금)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1	오창애 안나 974-2857	엄영숙 마리아 974-2857 4/1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희자 마리아 213-718-9262 4/11(목) 오전 11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4/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북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4/13(토) 팜스프링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주영애 켈마 818-640-3656 4/13(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유현화 리디아 541-4305 4/12(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정엽 미카엘 541-6347 4/12(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도영옥 수산나 617-3568 4/9(화) 오전 10시30분 성당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다음주 단체모임

제 단체 모임의 날

하느님! 당신의 자비에 저희를 의탁하나이다.

오늘은 부활 팔일 축제의 마지막 날로서, 부활절에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입었던 흰옷을 벗는다 하여 전통적으로는 '사백주일'이며, 2001년부터는 '하느님의 자비주일'이라 불리는 날이다. 후자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2000년 대회를 맞아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하면서 하느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기념하도록 당부하신 데서 시작되었다.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1905~1938)는 가난했으나 신앙심이 두터운 가톨릭 농부 집안의 10남매 중 세 번째로 태어나, 12살에 학업을 중단하고 가정부로 일하며 동생들의 생계를 도우다 20살에 '자비의 성모 수녀회'에 입회하였다. 일찍부터 영적 은총의 삶을 살아왔던 성녀는 그리스도의 환시를 체험한다.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 붉은색과 흰색의 두 갈래 빛이 비쳐 나오는 자신의 성심을 움켜쥐고, 다른 손을 내밀어 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녀에게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성녀는 자신의 일기에서 첫째, 모든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대해 성경이 전하는 신앙의 진리를 세상에 일깨우고 둘째,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을 실천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며 셋째, 이 신심운동의 목표는 그리스도교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 요약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하느님 자비의 사도'였던 파우스티나 수녀를 대회년과 새로운 천년기를 시작하는 가톨릭교회를 위한 첫 성인으로 시성한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은 제자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고, 빈 무덤은 토마스 사도를 방황하게 하였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토마스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세상의 죄를 용서하는 '자비의 사도'로 파견하신다. 세상은 하느님의 아드님을 단죄하였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이 아닌가. 그런 세상을 용서하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제자들을 파견하신 것이다.

잠시 각자 자신에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자.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에 속하며,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가 되었음을 깨닫자. 부활하신 주님은 일찍이 하느님의 첫 숨을 받아 생명체가 된 우리들(창세 2,7 참조) 오늘 다시금 성령의 숨으로 탄생시켜 세상과 이웃을 향한 자비의 사도가 되게 하신다. 단지 일상이 주는 정신적, 물리적 고통과 시련에 맞서지 못하고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 자신 다

시 일으켜 세워 세상을 향하여 나가자. 내가 먼저 하느님의 자비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어떤 잘못이든 용서하지 못하는 자와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용서에 사랑을 더하여 자비를 베푸는 사도가 되자.

◆박상대 마르코 신부 / 부산교구 물운대성당 주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의 핵심인데 그 부활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우리가 알고있는 일반 역사적 사실의 근거는 모든 것이 실제 사건들이고, 이 땅 위에 살다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역사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천 년 전, 우리 신앙 진리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신비는 신약성서가 증언하듯이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낳은 실제 사건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639항)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기적들을 경험하며 그분을 믿고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추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분을 따르던 이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으며, 목자 잃은 양떼처럼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무슨 일'인가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도 반신반의했던 제자들은 숨가쁘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무덤은 텅 비어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사실을 인정하는 첫걸음" (가톨릭교회교리서 640항)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 먼저 베드로에게 이어서 열두 사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또 예수님은 낙담한 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음이 불타올라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박차고 일어나며,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까? 그들이 수고와 핍박,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하게 만든 그 '무슨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이 그 모든 것을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사도들을 증인으로 파견하시고, 그들은 교회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부활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체험을 통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성실하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서울대교구사목국 연구실>